

# ‘명령 불복종이면 해고’ 갑질 주장 진정...광주FC 내홍

### A부장 ‘직장내 괴롭힘 주장’ 노동청 진정 B본부장 ‘적반하장, 직원들이 더 잘알 것’ 사무처 조직개편 뒤 잇단 진정·고소 ‘시끌’

사무처 조직개편 뒤 내부 구성원 간 진정과 고소가 이어지는 등 시민프로축구단인 광주FC가 내홍을 겪고 있다.

22일 광주FC 등에 따르면 소속 A부장은 B본부장을 상대로 한 진정서를 지난 주 광주지방노동청에 접수했다. 진정서는 직장내 괴롭힘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A부장은 B본부장이 지난 10일 오전 11시께 사무실 3층에서 ‘명령 불복종이면 인사

위에 회부해서 자를 수 있는 거 알지. 내가 모든 것을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았다’는 발언과 함께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A부장은 또 B본부장이 ‘나와의 대화’ 발언을 높이게 유도, 자신에게 유리한 발언만 녹음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갈등 속 이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 나를 억울한 상황으로 만들기도 했다’고 진

정서에 담았다. 광주FC는 지난해 11월 신입 대표이사를, 올해 2월에는 이사회를 통해 B본부장을 선임했다. 앞선 1월에는 기존 사무처와 경기지원본부를 경영본부로 통합했다. 이 과정에 C사무처장과 A부장을 경기관 리지원단으로 전보, D부장은 대기발령했다.

이후 광주FC 선수단 단체 채팅방에 ‘D부장은 대기발령 중이며, 선수단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에 D부장은 선수단 전체가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에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공공연하게 전파,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B본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C사무처장 역시 ‘광주시가 사퇴를 중용하며 부당 전보했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C사무처장의 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들은 최대 주주인 광주시가 조직개편이라는 명분 아래 자신들을 조직에서 배제시키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부장은 “B본부장이 나에게 했던 발언은 단순히 사실관계나 내부규정을 전달하는 의도가 아닌 나를 면박주고 협박, 사실상 해고를 주장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현재 광주FC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B본부장은 “A부장은 정상적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본인 마음대로 하려 했다. 그래서 내부 규정을 이야기하며 인사위에 회부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 오히려 A부장이 고

성을 유도했다.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주장은 적반하장이다.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다른 직원들이 (진실을) 더 잘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수단 단체대화방에 D부장의 업무 배제를 언급한 적 없다. 특정 직원이 게시한 것인데 나는 그런 지시를 한 바 없다. D부장을 업무에서 배제할 의사나 의도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B본부장은 “나는 조직 내 내용을 만든 적이 없다. FC서포터즈들이 더 잘알고 있을 것”이라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광주FC를 투명하게 만들어 놓고 싶은 사명감이 자리하고 있을 뿐이다. 변화를 바라는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내 할 일만 묵묵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이슬기자



‘제 몸이 물에 뜨네요’

22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웨이브파크 파도 풀에서 학생들이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받고 있다.

## 전우원 “돈세탁에 내 이름 그만 사용했으면...” 호소

### 전두환 손자, 비상장회사 주식 “차명 거래” 주장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비상장회사의 주식에 대해 “차명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그만 사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9일 전우원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회사 관해서 배당금을 돌려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이름이 그만 사용됐으면 좋겠다”며 “제 동의를 받지 않은 주식 거래가 이뤄졌고, 이에 대해 확인하려 하니 ‘보지 못한다’고 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당금은 아버지인 전재용 씨에게

가고, 관련 서류는 박상아 씨에게 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산 주식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던 회사도 아니고,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며 “실질적인 피해가 없으니 관련 서류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전재용 씨가 이전에도 제 이름으로 된 (차명) 재산에 대한 세금 안 냈고, 그 피해가 또 발생 할까 봐 우려된다. 혹여라도 제 이름이 도용된 회사로 인해 세금이 나오면 제가 낼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수삼 씨에게 부탁드린

다”며 “제발 제 이름으로 된 그 주식을 팔아 달라. 그러면 그 돈을 기부하고, 좋은 일에 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웨어블리는 고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손수삼 씨가 운영하는 IT업체이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이자 전우원 씨의 부친인 전재용 씨가 2019년 출소한 후 3년 동안 19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우원 씨는 웨어블리의 지분 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웨어블리 측이 전우원 씨에게 지급했다는 배당금 1억60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게 전우원 씨의 설명이다. 이슬비기자

## 광주 광산구, 군공항 등 소음피해 79억원 지급 결정

### 군공항·평동 군사격장 주변 2만8218명 대상

광주 광산구가 광주 군공항과 평동 군사격장 소음피해와 관련해 주변 지역민 2만 8218명을 대상으로 올해 분 피해보상금 79억원을 지급한다.

광산구는 지난 16일 제1회 광산구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광주 군 공

항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지역민이다.

또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평동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살았던 지역민도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이다.

결정된 가구별 피해보상금 규모는 5월 말까지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달 1일

부터 7월 31일까지 광산구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광산구는 피해보상금을 오는 8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내년도 접수 기간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임형택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